

지역 소식통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식품 체험관광 기업지원 설명회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원장 이희권)이 오는 16일 2024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시군구사업은 고창군 관내 식품·체험관광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시제품 제작 △패키지 및 디자인 개선 △효능평가 및 분석지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통해 고창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해 말 중소기업부 주관 2024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에 '고창 특화지원 기반 관광상품 고도화 지원' 과제로 공모·선정되었다.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은 국비 6억4,000만원, 도비 1억8,800만원, 군비 9,200만원의 재원으로, 2년간 9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 고창군 관내 식품·체험관광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2024년도 농어촌 소득사업 용자 지원

정읍시는 2024년도 농어촌 소득사업지원(구 주민소득지원기금) 용자금 지원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용자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새롭게 개편됐다. 신청 대상자는 2년 이상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농·축·어업인이다. 지원 대상사업은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조성, 농촌관광휴양사업 등이다.

용자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됐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후 5년 균분상환으로 조정했다. 또한 용자금의 이율이 연 2%에서 1%로 하향 조정돼 대상자들의 이자 부담을 대폭 줄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용자신청서와 제출서류들을 구비해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용자금액은 신청인의 용자 가능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이를 위해 농업의 신용조사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이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의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NLC ·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2024년 신규 회원도시로 가입했다. 사진은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국제포럼. <사진=부안군청 제공>

부안군, 평생학습문화 조성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신규 회원도시 가입 선진 회원도시 교류·우수사례 공유 지역사회 함께 성장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의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NLC ·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2024년 신규 회원도시로 가입했다. 이번 가입은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UIL의 최종 심사를 거쳐 35개국 64개 도시가 신규 회원도시로 이름을 올렸으며 국내 평생학습도시 중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및 경기도 하남시와 함께 군단위 지자체 중에는 부안군이 유일하게 최종 가입하는 쾌거를 거뒀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전 세계 학습도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례공유와 정보교환, 공동 프로젝트 기획 등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유네스코가 설립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6개국 294개 도시가 가입해 평생학습 지식과 우수사

례를 공유하고 있다. 부안군은 이번 가입을 통해 선진 회원도시와 교류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의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7가지 목표 실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군은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라는 비전 아래 지난 2017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2022년 4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를 거쳐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됐다.

특히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온라인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한 환경 개선 노력, 평생학습 네트워크 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전담인력 역량 강화 노력, 평생학습관 건립 추

진 및 다양한 시설의 평생학습 공간 활용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북 지역 군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에는 UIL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부안군이 주관해 2023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해당 포럼에는 전국평생학습도시 관계자와 해외의 관계자, EBS, 전북지역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포럼에 유네스코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평생학습 상반기 수강생모집

22일부터 24일까지

정읍시가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수강생을 모집한다.

시 평생학습관은 2024년 상반기 수강생 24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직업능력(자격증 준비)과 문화예술, 인문교양 분야 등이다. 정읍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직업능력 분야는 시에 잡채

된 인적 자료를 발굴해 전문성과 지도력을 갖춘 활동가·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 과정으로 △캘리그래피 지도사 △신박한 정리수납(정리수납 전문가) △우리 몸 바른체형 지도사 △인지놀이(치매예방) 전문가 △아로마전문관리사 과정 등이 마련됐다.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문화예술 분야에는 △색연필 드로잉 △생활목공(초급) 과정이 있다. 현대인으로서 다양한 소양을 개발

하기 위한 인문교양 분야는 △생활 약초교실 △드론 이해와 실전 △MBTI 유형과 갈등관리 △부동산 공평매 △색채심리활용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접수는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정읍시 평생학습관(중양2길 22)에서 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상반기 교육은 3월 4일 개강해 6월 말까지 15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와 교재는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고창군, 보험항목을 24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을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하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항목을 24개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다. 지난해 비해 6개 항목이 늘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등 24개 항목으

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재산·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창 군민은 관련 증빙 자료(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1577-5839)에 문의 및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에 의거 3년간 미 행사 시 소멸된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건은 총 35건으로 농기계 사고사망 4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는 3건, 익사사고사망 1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건, 감염병사망 26건으로 총 1억8,000만원을 보상받았다.

심덕식 고창군수는 "군민모두가 행복한 활력을 넘치는 고창을 위해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의 조기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풍요·안녕 기원' 정월대보름·당산제 개최

마을의 안녕과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행사 정월대보름, 당산제가 정읍시 10여개 읍·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마을 특색에 맞게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마을 당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먼저 지난 12일에는 칠보면 원백마을에서 당산제가 개최됐다. 23일에는 영인면과 덕천면 용곡마을, 24일

입암면 신월마을과 정유면 양지마을, 산내면, 신외면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28일은 신대면을 우렁마을에서, 3월 10일은 북면 원오류마을과 정유면 천덕마을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는 "행사를 통해 고유의 민속문화를 재현하며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후대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려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조례 개정

부안군은 무릎 관절증으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수술받지 못하는 부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2년 12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해부터 의료비를 지원하던 중 조례 제6조 지원 신청이 수술 전 신청으로 수술 후 신청자의 의료비 지원이 불가해 이를 해결하고자 의료비 지원 신청 기준을 수술 전 신청에서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으로 이달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함에 따라 지난해 수술 후 지원 신청한 미지급 대상자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 대상자 기준은 건강보험료 중 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어르신에게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양쪽 200만원 한도로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최근 1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규 제 완화를 통한 의료비 지원신청 대상자 확대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Text includes: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It lists symptoms of child abuse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reporting (112).